

보호관찰청소년의 탈비행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권해수**, 강호성***

국 | 문 | 요 | 약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탈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비행 과정에 이르는 인과 경로는 학자마다 서로 대립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비행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이 어떠한 인과 관계를 형성하는지 교호적인 연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년법상 5호 처분(장기보호관찰, 2년)을 명령받고 1년동안 탈비행 상태를 유지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12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3개월을 단위로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을 반복 측정하고,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이전 시점의 사회적 자본은 이후 시점의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전 시점의 개인 주체성도 이후 시점의 개인 주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전 시점의 개인 주체성은 이후 시점의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전 시점의 사회적 자본은 이후 시점의 개인 주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호소년의 재범 방지 및 탈비행 축진을 위한 상담 개입과 소년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0.06.30.2.183>

❖ 주제어 : 탈비행, 사회적 자본, 개인 주체성,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보호관찰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S1A5A2A01023028)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제1저자, 교신저자)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I. 서론

최근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고생 집단 폭행 사건, 수원 폭행 사건 등 잇따른 충격적인 소년 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소년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높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소년원 퇴원(退院)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나고 유럽 선진국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Snyder & Sickmund, 2006). 우리나라에서는 소년 범죄자 중 약 33.7%가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된다(대검찰청, 2019).

대부분의 소년 범죄자들이 성인 범죄자로 전이되지만, 모두가 성인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년 범죄자들 중에서 탈비행(desistance)에 성공한 사례는 적지 않다(Laub & Sampson, 2003). 범죄학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비행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주목하였다가 점차 왜 그들이 궁극에는 비행을 중단하게 되는지 즉, 탈비행(desistance from crime)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기 시작했다(김경숙·남현우, 2015; 한영선, 2010). 그 결과, ‘소년 범죄자 중 탈비행에 성공하는 자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소년 범죄자들이 탈비행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어떠한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현재까지 탈비행에 대해 권위 있고 학자들이 가장 신봉하고 있는 이론은 Sampson과 Laub(1993)의 비공식적 사회통제(age graded informal social control theory)와 이를 한 단계 진보시킨 Laub와 Sampson(2001, 2003)의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 of desistance)이다. 두 이론들은 모두 사회 통제 이론을 근거로 하며, 탈비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Sampson과 Laub(1993)은 인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 중 특히 결혼, 취업 또는 군 입대가 비행과 단절하는 전환점의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결혼, 취업 등에서 생성되는 애착, 유대, 그리고 일상생활의 틀 또는 구조는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 기능을 담당하여 소년 범죄자들을 탈비행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Laub & Sampson, 2001, 2003; Sampson & Laub, 1993).

Sampson과 Laub(1993)은 일상생활의 변화와 유대 및 애착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사회적 자본이란 한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 구조 혹은 사회적 관계의 한 측면으로 정의될 수 있다(Coleman, 1988). 쉽게 말해,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지원 또는 네트워크의 한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유대 및 애착은 물질 혹은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일종으로 이해된다(권해수·윤일홍, 2015). 한 사회구조 또는 관계 속에서 구성원 상호간에 애착과 유대가 강한 경우는 사회적 자본이 높고, 반대의 경우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주영신과 이민창(2008)은 비행청소년 중 재범 후 탈비행에 성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재범 후 비행청소년이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진실한 반성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손순용과 양철호(2009)는 보호관찰 처분을 종료한 10명의 청소년을 심층 면접한 결과, ‘보호관찰의 경험을 안고 가족과 외부의 도움 속에 우리 사회에 재적응하기’를 핵심 범주로 제시하면서 가족과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탈비행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Laub과 Sampson(2003)은 탈비행에 성공한 대상자들에 대한 면담 및 내러티브 조사를 통해서 탈비행자의 주체성(human agency)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탈비행에 성공한 대상자들이 탈비행 과정을 거치면서 정체성(identity)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비행에 성공한 비행청소년들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스스로를 운명의 능동적 개척자로 인식하는 등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가족이나 직장에 대해 책임감을 가졌으며, 비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위반 행동을 하면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인식하고 비행 행동을 하는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며, 피해자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다짐들이 생겼다고 한다.

Maruna(2001)와 Maruna와 Farrell(2004) 역시 개인 주체성의 변화는 탈비행에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 패턴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Laub과 Sampson(2003), Maruna(2001), Maruna와 Farrell(2004)가 주장하는 탈비행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형성된 전환점(exogenously generated turning points)을 통한 사회유대의 형성이며, 당사자의 내부적 인지의 변화나 심리 상태의 변화 또는 정체성의 변화는 사회적 유대가 형성된 이후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들에 의하면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된 이후에야 개인 주체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인과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한편, Laub과 Sampson(2003)의 이론이 학계에 널리 퍼졌을 당시인 2000년대 초반에 학계에는 Gidarno와 그의 동료들(2002)이 Laub과 Sampson(2003)의 이론과는 다소 대립되는 탈비행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회통제이론이 아닌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적 견해에 바탕을 두었으며, 탈비행을 이끄는 핵심은 외부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유대가 아니라 개인이 먼저 인지 변화, 정서적 성장,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를 겪은 후에 비로소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며 탈비행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두 이론은 모두 탈비행에 관한 이론이며 둘 다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human agency)을 언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Laub과 Sampson(2003)는 사회적 유대 형성 이후에 개인 주체성이 형성된다는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Gidarno와 그의 동료들(2002)은 개인 주체성이 형성된 이후에 사회적 유대와 탈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두 이론은 개인주체성과 사회적 유대의 인과 경로에서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과연 어느 주장이 경험적으로 우월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거의 전무하다. 이런 시점에 일정기간 동안 탈비행 상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탈비행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이 서로 어떠한 인과 관계를 형성하는지 교호적인 연쇄 과정(reciprocal sequence process)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의 인과 관계를 종단적으로 알아보고자 변인들 간의 시간에 걸친 교호적인 상호영향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기

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하고자 한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측정된 변인들 간의 상호영향력을 추정하는 데 적용되는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 박민선 · 김원정, 2007).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t 시점의 값이 $t-1$ 시점의 값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 모형으로 확장하여 두 변인간의 상호지연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MacKinnon, 2008). 즉 한 변인의 이전 시점 값이 다음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자기회귀효과(*autoregressive effect*)와 두 변인 간 시간의 지연에 걸친 상호작용에 대해 볼 수 있는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그동안 탈비행 관련 연구들은 탈비행 개념을 완전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측정 방식의 합리성이 떨어지며, 연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보여주었다(권해수 · 윤일홍, 2015). 범죄자들의 생애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관찰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많은 범죄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후 다시 어느 정도 범행을 자제하다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지그재그식 행동 패턴을 보인다(Clarke & Cornish, 1985; Laub & Sampson, 2003). 소년원 출원(出院) 후 탈비행에 성공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여러 연구들에서도 출원 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의 과도기적 기간에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가장 높고, 이 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성공적인 사회정착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해수 · 이연상, 2013; 김지선, 2012; 송영지 · 최송식, 2016; Mears & Travis, 2004).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탈비행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획득된 일회성의 조사가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의 중단적인 인과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탈비행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관련 자료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기 한정형 비행자들의 대부분은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나 지역사회 도움의 없이 저절로 탈비행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비교적 심각한 종류의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을 탈비행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다(권해수 · 윤일홍, 2015; Sampson & Laub, 1993). 이에 본 연구에서는 5호 처분(장기보호관찰, 2년)을 받을 만큼 비교적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중에서 1년 동안 경찰의 체포나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재비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찰의 체포기록과 법원의 유죄 판결 자료를 참고하였다. 형사 사법 기관의 공식 자료는 재비행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그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또 활용하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이다(권해수 · 윤일홍, 2015).

그동안 국내 연구 중에서 비교적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탈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탈비행 과정을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특히 소년법들을 장기간동안 관찰한 종단적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거나, 인생 경로의 한 시점만을 관찰 대상으로 하였다(권해수 · 이연상, 2013, 이희연, 2005). 물론 국내에서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비행 발달 궤적, 탈비행 발달 궤적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소수 행해졌지만, 이들 연구들은 일반 중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비행을 저질러 형사 사법 개입 대상이 되는 소년범죄자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웠다(이은주, 2012; 김경숙 · 남현우, 2014; 정익중, 2009; 전선영 · 문성호,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심각한 종류의 비행을 저질러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중에서 1년 동안 경찰체포나 법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소년을 대상으로 탈비행의 발달 궤적을 탐색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탈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진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이 보호관찰 개시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은 보호관찰 개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떠한 인과 관계를 보이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5호 처분을 명령받고 1년 동안 탈비행 상태를 유지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1년 동안 3개월을 단위로 반복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연하면, 재비행의 터닝포인트 시기(6개월, 9개월, 12개월)마다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을 반복 조사하여 위

두 요인의 중단적인 인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년 동안 탈비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중단 연구로서, 청소년 탈비행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의 중단적인 인과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소년보호 정책 수립 및 상담 실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탈비행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비행청소년 상담 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장기간 동안 비교적 심각한 종류의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을 탈비행의 연구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Sampson과 Laub(1993)의 주장에 따라 소년법상 5호 처분(장기보호관찰, 2년)을 받은 보호관찰청소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전국 광역단위 보호관찰소(서울, 대구, 광주)에서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당 보호관찰관의 설명을 통해 연구에 동의한 자에 한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 조사는 총 3차에 걸쳐서 보호관찰 처분이 시작된 이후부터 3개월 단위로 1년 동안 동일 대상을 추적하여 반복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보호관찰 개시 6개월, 2차 조사는 보호관찰 개시 9개월, 3차 조사는 보호관찰 개시 12개월 중에 실시되었다. 참여자들은 매월 1~4회에 걸쳐 담당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면담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끝난 직후에 30여분 동안 연구진의 감독 하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각 회차별 설문조사가 끝나면 소정의 답례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최초 본 연구에 참석한 대상자는 총 120명이었으나 그 중 33명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비행을 저질러 분류심사원 혹은 소년원에 수감되어 본 연구 대상자에서 탈락되었다. 물론 이 33명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탈비행 상태를 유지하는 대상자와 재비행을 저지른 대상자간에 사회적 자본과 개인주체성의 양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유도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비행자들의 재수감으로 인해 연구자의 접근가능성이 다소 제한되었고 또 재비행자의 수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적 추정에 있어 검정력의 한계를 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1차 조사는 보호관찰 개시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실시되었으며, 2차 조사는 9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실시되었고, 3차 조사는 보호관찰 개시 이후 1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조사되었다. 1차 조사 시 참여자는 120명이었으나 2차 조사에서 103명(85.8%), 3차 조사에서 87명(72.5%)이 참여하였다. 1차 조사 이후 총 33명(27.5%)이 재비행으로 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수감되어 본 조사에서 누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관계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세 시점 중 한 시점이라도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총 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최종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자’는 73명(83.9%), ‘여자’는 14명(16.1%)이었으며, 연령은 ‘15세 미만’은 10명(14.9%), ‘16~17세’는 41명(47.1%), ‘18~19세’는 36명(41.4%)이었다. 이번 포함 총 보호관찰 경력은 ‘1회’가 33명(37.9%), ‘2회’는 20명(23.0%), ‘3회’는 21명(24.1%), ‘4회 이상’은 13명(14.9%)이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의 질,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의 질, 성인 멘토와의 긍정적인 관계의 질이라는 세 가지 측정 변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을 잠재변인으로, 탈비행자의 정체성, 재통합적 수치심, 미래 기대 등의 3가지 측정 변인으로 구성된 개인 주체성을 잠재변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먼저, 사회적 자본을 보호관찰청소년이 가족(부모), 친구, 성인 멘토(보호관찰위원 혹은 상담전문가 등)와 맺고 있는 관계의 질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Furman과 Buhrmester(1985)가 제작한 사회적 관계망 척도(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NRI)를 한중혜(1994)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척도는 긍정적인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7개 항목(결속력, 인정, 애정, 보

살핌, 친밀감, 만족감, 도움)과 부정적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3개 항목(처벌, 대립, 주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7개 항목만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보호관찰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친구, 그리고 성인 멘토와의 긍정적 관계의 질로 측정되었다. 사회 관계망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한중혜(1996) 연구에서는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탈비행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개인 주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 재통합적 수치심, 미래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였다.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탈비행 관련 문헌을 토대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아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다’, ‘내 운명의 주인은 분명히 나 자신이다’, ‘이제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비행행동을 계속 하기엔 나의 나이가 너무 많다’ 등의 4개 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0로 나타났다. 재통합적 수치심은 범죄자가 용서를 구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준법 시민들의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수치심을 뜻하다(BraithWaite, 1989). 본 연구에서는 BraithWaite(1989)의 수치심 척도를 참조·보완하여 김은주(2003)가 개발한 재통합적 수치심 척도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김은주의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가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0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Fisher와 Leitenberg(1986)가 개발하고, 신건호와 구본용(2004)이 타당화한 성공 기대 척도(Generalized expectancy for succ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성공 기대 척도는 낙관 기대 9개 문항, 비관 기대 6개 문항,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낙관 기대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내적 신뢰도는 신건호와 구본용(2004)의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6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개인주체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4.0과 Mplus 7.4를 이용하였고, 종단자료에서 발생하는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였다(홍세희 · 박민선 · 김원정, 2007).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2009)의 제안에 따라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차례대로 검증하였다. 측정 동일성이란 시간에 따라 특정 측정변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응답자들에 의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인이 동일한 개념인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게 설정한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각 잠재변인의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t-1’시점의 잠재변인이 ‘t’ 시점의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회귀계수)와 ‘t’ 시점의 잠재변수가 ‘t+1’ 시점의 잠재변인에 영향을 주는 효과(회귀계수)가 동일한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각 시점에서 설정된 오차 간의 공분산을 고정함으로써 각 잠재변인이 가지는 관련성이 진정한 의미의 관련성인지 시간 변화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통해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 가정이 만족된 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잠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적 자본과 개인주체성의 상관 관계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1. 사회적 자본 1차	1					
2. 사회적 자본 2차	.61***	1				
3. 사회적 자본 3차	.50***	.70***	1			
4. 개인 주체성 1차	.68***	.66***	.59***	1		
5. 개인 주체성 2차	.63***	.68***	.61***	.72***	1	
6. 개인 주체성 3차	.44***	.55***	.59***	.62***	.69***	1
평균 (표준편차)	80.67 (12.22)	82.74 (9.82)	83.76 (9.41)	67.06 (7.95)	69.31 (7.20)	71.69 (7.34)
왜도	.20	.28	.28	.66	.49	.10
첨도	.57	.46	.46	1.00	.70	.66

*** $p < .001$

먼저, 왜도는 절대값 2, 첨도는 절대값 7을 초과할 경우 자료의 정규성 여부가 의심되는데 본 연구 자료들은 기준 범위 내에 존재하므로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의 평균 변화량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경우 1차 조사($M=80.67$, $SE=12.22$), 2차 조사($M=82.74$, $SE=9.82$), 3차 조사($M=83.76$, $SE=9.41$)이었으며, 1년 동안 탈비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처분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사회적 자본의 평균 점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 주체성의 경우 1차 조사($M=67.06$, $SE=7.95$), 2차 조사($M=69.31$, $SE=7.20$), 3차 조사($M=71.69$, $SE=7.34$)이었으며, 1년 동안 탈비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처분 이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인 주체성의 평균 점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인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이전 시점의 사회적 자본과 개인주체성은 이후 시점의 사회적 자본과 개인주체성의 관계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동일 시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이전 시점의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은 이후 시점의 각각 다른 변인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2. 연구 모형의 적합성 검증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과 경로 동일성 그리고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이 일련의 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고 순차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윤예인 · 김주일, 2019). 따라서 기본 모형인 모형 1부터, 측정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 2와 모형 3, 그리고 경로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마지막으로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위한 모형 8까지 8단계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모형 적합성 비교 결과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1	6,505	4	.164	0,965	0,990	0,072(0,000~0,169)
2	14,585	5	.012	0,893	0,962	0,126(0,054~0,204)
3	15,398	6	.017	0,913	0,963	0,114(0,044~0,186)
4	17,176	7	.016	0,919	0,960	0,110(0,044~0,177)
5	17,230	8	.027	0,936	0,963	0,098(0,031~0,162)
6	17,790	9	.037	0,946	0,965	0,090(0,021~0,152)
7	18,702	10	.044	0,952	0,965	0,085(0,013~0,144)
8	23,616	11	.014	0,936	0,949	0,095(0,029~0,156)

모형1은 기본 모형으로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이다. 모형 2는 잠재변

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요인 부하량에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3은 위의 모형 2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개인 주체성에 대한 요인 부하량을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4는 잠재변인 사회적 자본의 자기 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5는 잠재변인 개인 주체성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 6은 잠재변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잠재변인 개인 주체성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7은 반대로 잠재변인 개인 주체성에 대한 잠재변인 사회적 자본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마지막 모형 8은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의 오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위의 8개 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 1에서 모형 8까지 모형 간의 모형적합도 수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동일성 제약 모형이 모형 적합도 판단 기준치를 넘겼으며, 그 수치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형 8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의 RMSEA의 값은 0.095로 0.08을 조금 넘었고, TLI 값은 0.936으로 적합도 기준인 0.9를 넘었으며, CFI 값은 0.949로 0.9를 넘겨 모형의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3. 최종 모형

최종 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이전 시점의 사회적 자본이 이후 시점의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0 \sim .46, p < .001$). 마찬가지로 이전 시점의 개인 주체성은 이후 시점의 개인 주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71 \sim .72, p < .001$). 이러한 결과는 1년 동안 탈비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은 보호관찰 처분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 주체성이 사회적 자본에 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관성을 높게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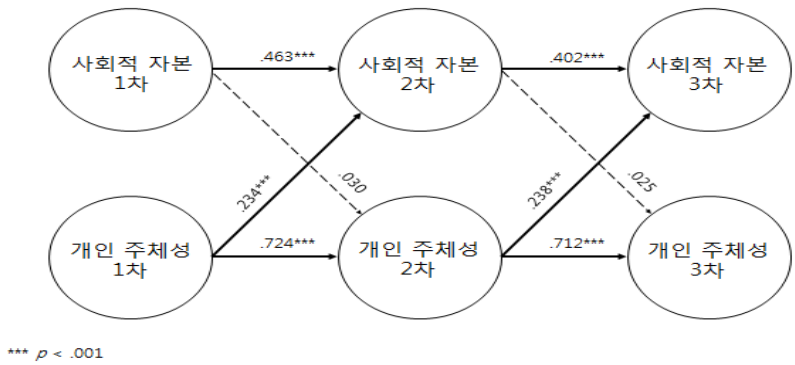
다음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이 어떤 인과적 관계를 보이는지를 교차지연 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전 시점의 사회적 자본은

이후 시점의 개인 주체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025 \sim .030$, ns). 반면에 이전 시점의 개인 주체성이 이후 시점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3 \sim .24$, $p < .001$). 이는 종단적 관계에서 개인 주체성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가는 일방향적 관계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1년 동안 탈비행을 유지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의 개인 주체성이 높을수록 이후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며, 이는 모든 측정 시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자기 회귀 경로	사회적 자본 1차 → 사회적 자본 2차	.463***	0.059	.378
	사회적 자본 2차 → 사회적 자본 3차	.402***	0.059	.378
	개인 주체성 1차 → 개인 주체성 2차	.724***	0.058	.694
	개인 주체성 2차 → 개인 주체성 3차	.712***	0.058	.694
교차 지연 경로	사회적 자본 1차 → 개인 주체성 2차	.030	0.043	.021
	사회적 자본 2차 → 개인 주체성 3차	.025	0.043	.021
	개인 주체성 1차 → 사회적 자본 2차	.234***	3.075	10.341
	개인 주체성 2차 → 사회적 자본 3차	.238***	3.075	10.341

*** $p < .001$



〈그림 1〉 최종 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1년 동안 탈비행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간적 경과에 따라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이 어떠한 인과적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보호관찰청소년 중에서 1년 동안 탈비행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3회에 걸쳐 사회적 자본과 개인주체성을 측정하였으며,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자기회귀 계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 탈비행을 유지하는 동안 이전 시점의 사회적 자본이 이후 시점의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에서 높은 사회적 자본 수준을 보였던 보호관찰청소년은 이후 시점에서도 다른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보호관찰 집행 직후부터 가족, 친구, 성인 멘토와 긍정적인 관계의 질을 꾸준히 형성하는 것이 탈비행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탈비행 변화 과정에서 비행자 자신의 동기와 사회적 맥락과의 연결을 강조한 Rex(1999)의 결과와 같은 취지이다. 또한 탈비행 과정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련성 및 사회적 맥락의 가치를 강조한 김경숙과 남현우(2015), McGuire과 Priestley(1995)의 연구 결과와도 궤를 같이 한다.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애착과 유대가 형성되고 사회적 자본이 쌓여가는 비교적 오랜 과정 속에서 서서히 탈비행에 이르게 된다는 권해수와 윤일홍(2015)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둘째, 개인 주체성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자기회귀 계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 탈비행을 유지하는 동안 이전 시점의 개인 주체성이 이후 시점의 개인 주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개인 주체성을 지녔던 탈비행 청소년은 이후 시점에서도 다른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 재통합적 수치심, 그리고 미래 기대와 같은 개인 주체성이 탈비행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꾸준히 상승하며, 탈비행

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비행의 유경험자가 탈비행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McNeill(2006)의 연구, 비행 유경험자가 재비행하지 않으려고 비행 관련 태도, 사고, 행동 등에 가하는 자아의 노력을 강조한 Lloyd와 Serin(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사회통제요인과 인지요인 중에서 탈비행자의 정체성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탈비행에 더욱 강한 예측력을 나타낸다는 김경숙과 남현우(2014)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 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과 관계의 방향성을 교차지연 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호관찰 처분 명령을 받은 지 6개월 시점에서 개인 주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9개월 시점에 측정된 사회적 자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주고, 증가된 개인 주체성 수준은 12개월 시점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호관찰 처분 명령을 받은 지 6개월 시점에서 측정된 사회적 자본 수준은 9개월 시점에 측정된 개인 주체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9개월 시점의 사회적 자본 또한 12개월 시점의 개인 주체성 수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관찰 처분 집행 이후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의 방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교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호관찰 집행 초기(6개월)의 개인 주체성이 9개월 시점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9개월 시점의 개인 주체성이 이후 12개월 시점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일방향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탈비행자의 주체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는 유의한 반면에, 사회적 자본이 탈비행자의 주체성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이 먼저 생성되었을 때 선배, 교사, 친인척 등과의 사회적 유대감과 애착이 탈비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일정 수준 형성한 이후에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받아야만 탈비행을 촉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 주체성 강화가 사회적 자본 제공보다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결과는 일반청소

년을 대상으로 사회통제요인과 인지요인의 동시효과 모델을 적용한 결과 인지 요인이 더 우세한 것으로 밝혀진 김경숙과 남현우(2015)의 주장과 결이 같다. 또한 비행자에게 인지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 초기 탈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Healy(2010)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인지 요인과 같은 주관적 요인은 탈비행으로 나아가는 변화 초기 단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Merrington과 Stanley(2004)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는 미래에 대한 나만의 꿈이 있어야만 탈비행이 시작되고, 미래에 대한 나만의 꿈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선택, 교사, 친인척 등 기성 세대와의 유대감을 통해 필요한 조언과 정보 습득을 잘하는 청소년이 탈비행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이상인(2017)의 연구결과와도 부합된다. 또한 탈비행 촉진을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비행청소년의 주관적 인지 변화의 습득 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객관적 사건(예, 부모애착, 부모감독)을 제공하는 순서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김경숙·남현우, 2012)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 변화, 재통합적 수치심 등 개인 주체성의 변화가 먼저 수반되어야 부모나 선택, 교사 등과 사회적 유대를 통한 조언과 정보 습득이 탈비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초기 탈비행 과정에서 부모 애착, 부모 감독과 같은 지속적인 유대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비행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지 기술 및 긍정적 정체성 변화를 돕는 개입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소년보호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 결과는 보호관찰대상자의 탈비행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대학생 멘토링, 보호관찰위원, 후견인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제공할 경우 정서적·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지적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통합적인 수치심 및 미래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한 지지와 멘토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탈비행 초기 단계에서 개인 주체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개인 주체성 요소인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 재통합적 수치심, 미래 포부와 같은 요소들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행청소년을 위한 상담 전략을 청소년의 내적인 인지 변화에 주력해서 탈 비행자로서의 긍정적인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사할 필요성이 크다. 비행자로서의 정체성에서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하고, 비행을 저지른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며, 미래의 원하는 자아에 대한 이미지 증진 및 미래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 개시 초기에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성폭력가해자의 재비행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된 좋은 삶 모델(The Good Lives Model)에서도 비행자의 인지적 주체성과 동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인중재모형(Interpersonal Moderator Model)에서도 탈비행 결심을 시도하고 변화 유지에 기여하는 인지 요인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Serin & Lloyd, 2009, Lloyd & Serin, 2012). 대인중재모형에서는 탈비행의 핵심 요소로서 희망감, 자기효능감, 귀인, 결과 기대, 정체성, 자아개념, 신념의 변화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 초기 개입 시 인지행동치료, 좋은 삶 모델(Ward & Marshall, 2004), 대인중재모형(Serin & Lloyd, 2009) 등과 같이 개인 주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 개입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으로 가족, 친구, 성인 멘토와의 긍정적인 관계의 질을 구성하였고, 개인 주체성으로 탈비행자로서의 정체성, 재통합적 수치심, 미래에 대한 기대의 3가지 요인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자본과 개인주체성을 설명하는 변인들이 다양하므로 향후에는 다른 변인들을 구성하여 사회적 자본과 개인주체성의 종단적 인과 관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탈비행의 촉발 및 유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세 차례의 종단 자료를 수집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5호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1년 동안 공식적인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대상만을 연구 자료로 분석하다보니 표본수가 적어 전반적인 모형 검증력이 떨어졌다. 향후 보다 많은 사례수를 수집하여 본 연구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크다.

셋째, 연구 대상자 선정에서 연구에 동의한 자만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에 동의한다는 것은 5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지만 비교적 사회 규범에 순응한다는 점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재범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제3의 연구기관에 의하여 관찰 당한다는 점이 소년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탈비행의 중요 변인이 성숙요인(연령)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성숙이론에서는 연령이 들어가면서 자연발생적인 성숙과 함께 자연스럽게 탈비행이 예측된다고 본다(Farrington, 1986; Hirschi & Gottfredson, 1983). 향후 연령 등과 같이 탈비행의 촉발 및 유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제한 후,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의 자기지연효과 및 상호교차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조절 효과나 매개효과 연구를 하지 않았다. 차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혹은 탈비행에 중요한 위험 요인이나 보호요인과의 매개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5호(장기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종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비교적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탈비행 과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특히 종단적 자료를 활용한 탈비행 발달 궤적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권해수·윤일홍. (2015). 청소년탈비행 과정에 관한 고찰: Sampson과 Laub의 생애 과정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6(4), 185-212.
- 권해수·이연상. (2013). 탈비행에 성공원 소년원 출원생의 생활 실태 분석. 청소년 시설환경, 11(3), 125-136.
- 김경숙·남현우. (2012). 중기 청소년 탈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예측요인의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3(4), 131-157.
- 김경숙·남현우. (2014). 탈비행 청소년의 비행정체성에 대한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의 변인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5(2), 209-236.
- 김경숙·남현우. (2015). 비행청소년 상담(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교정패러다임에서 탈비행패러다임으로. 청소년학연구, 22(12), 781-809.
- 김은주. (2003).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선. (2012). 소년원 출원 청소년을 위한 실효적 지원 방안. 소년원 출원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토론회 자료집, 23-42.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대검찰청. (2019). 2018년 범죄분석. 대검찰청.
- 손순용·양철호. (2009). 보호관찰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연구, 17(1), 61-82.
- 송영지·최송식. (2016). 청소년기 재비행 후 적응 과정에서의 경험. 청소년상담연구, 24(1), 65-88.
- 신건호·구본용.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부모의 자녀성적에 대한 반응과 자녀의 자아개념 및 미래기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2(2), 30-41.
- 이상인. (2017). 청소년의 탈비행 촉진 요인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2012).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 비행여부와 비행수준을 구분한 이원잠재성

- 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185-215.
- 이희연. (2005).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 한국청소년연구, 16(1), 383-419.
- 전선영·문성호. (2013). 청소년 탈비행의 유형 및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2), 395-415.
- 정익중. (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253-280.
- 주영신·이민창. (2008). 비행청소년의 재범 후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48, 5-31.
- 한영선. (2010). 소년범죄자의 범죄중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종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세희·박민선·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 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e, R., & Cornish, D. (1985). Modeling offenders' decisions: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 In M. Tonry & N. Morris(Ed.), *Crime and Justice* (Vol. 6, pp.147-18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S95-S120.
- Farrington, D. (1986). Age and crime. In M. Tonry & N. Morris(Ed.), *Crime and Justice* (vol. 7, pp.189-2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ordano, P. C., Cernkovich, S. A., & Rudolph, J. L. (2002). Gender, crime, and desistance: toward a theory of cognitive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 990 - 164.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aly, D. (2010). *The dynamics of desistance : Charting pathways through change*. Willan, 20-35
- Hirschi, T., & Gottfredson, M. R. (1983). Age and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552-584.
- Laub, J., & Sampson, R. (2001). Understanding desistance from crime. In M. Tonry (Ed.), *Crime and justice* (Vol. 28, pp. 1-6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ub, J., & Sampson, R. (2003). *Shared beginnings, divergent lives: Delinquent boys to age 7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lyod, C. & Serin, R. (2012). Agency and outcome expectancies for crime desistance: measuring offenders' personal beliefs about change. *Psychology, Crime & Law*, 18(6), 543-565.
- MacKinnon, D. (2008).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New York: Routledge.
- Maruna, S. (2001). *Making good: How ex-offenders reform and reclaim their l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oks.
- Maruna, S., & Farrall, S. (2004). Desistance from crime: A theoretical reformulatio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43, 171-194.
- McGuire, J. & Priestley, P. (1995). Reviewing what works : past, present and future, in J. McGuire (Ed.), *What Works: Reducing Offending*. Chichester: Wiley.
- McNeill, F. (2006). A desistance paradigm for offender management.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6(1), 39-62.
- Mears, D. P., & Travis, J. (2004). Youth development and reentr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2(1), 3-20
- Merington, S., & Stnley, S. (2004). What works: Revisiting the evidence in england and wales. *Probation Journal*, 51(1), 7-20.
- Rex, S. (1999). Desistance from offending: Experiences of probation, *Howard Journal*, 38, 366-83.

- Sampson, R., & Laub, J.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erin, R. & Lloyd, C. (2009). Examining the process of offender change: the transition to crime desistance. *Psychology, Crime & Law*, 15(4), 347-364.
- Snyder, H., & Sickmund, M. (2006).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06 nation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Ward, T. & Marshall. B. (2004). The good lives model and conceptual issues in offender rehabilitation *Psychology, Crime, and, Law*, 10, 243-5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gency and social capital in the desistance process among juvenile delinquency: Applied with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Kweon Hae-soo**, Kang Ho-sung***

Despite the fact that social capital and human agency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affect desistance from crime, the causal path leading to the desistance process is confronted by scholar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longitudinal reciprocal sequenc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human agency in the desistance process. For this purpose, 120 juveniles who received the No. 5 probation were measured social capital and human agency three times every three months, and it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Results showed that, first, result of the stability coefficient, reflecting the autoregressive coefficients of each variable, show that human agency and social capital were significantly stable over time. Second, result of the cross-lagged coefficient, show that social capital had not a significant effect on human agency, whereas human agen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capita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nseling intervention and juvenile protection policy were discussed.

❖ key words: desistance, human agency, social capital,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S1A5A2A01023028)

*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Chosun University(the 1st Author, the Corresponding Author)

* Director General, Criminal Prevention Policy Bureau,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